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탄생

— 1920~30년대 여기자(女記者)집단을 중심으로 —

김연숙*

1. 1920~30년대 저널리즘과 여성
2. 근대적 직업으로서의 여기자(女記者)
3. 여기자(女記者)-작가 집단의 출현
4. 문단과 여성작가의 관계
5. 여기자(女記者)의 몰락과 여성작가의 출발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국문초록

1920년대 이후 여성작가들은 이전(以前) 시기에 비해 좀더 체계적인 기반을 통해 등장한다. 이때 중요한 장(場)이 학교와 저널리즘이다. 학교가 글쓰기와 글읽기를 습득·훈련시키는 근대적 제도라면 저널리즘 공간에서는 글쓰기와 글읽기가 근대적으로 유통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여기자-작가에 대한 기본 사실부터 확인해 나가며, 1920~30년대 여기자-작가들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1920년 이후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신여성은 기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성독자라는 집단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여기자가 등장함으로써 저널리즘에서 여성적 공간이 넓어지지만 이들의 역할은 영업사원으로 한정되는 등,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공간만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적 의도에서 발탁되었던 여기자들 중 일부가 여기자-작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비록 그들이 작가 자질 시비에 시달려야 했고, 남성권력에 결탁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저널리즘이라는 근대적 메커니즘 속에서 자신을 기입하려 했던 여성의 고투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최정희와 송계월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남성 문인기자의 경우 이미 작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은 단계에서 기자로 발탁, 생계문제와 글쓰기의 양심 문제를 고민했고, 전통적인 문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작가로 분화되어 나갔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근대 공간에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기입하는 글쓰기를 통해 사회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작가라는 정체성을 형성시켜나갔던 것이다.

핵심어 : 여기자, 여성작가, 저널리즘, 여성적 글쓰기, 젠더화된 공간, 여성적 정체성

1. 1920~30년대 저널리즘과 여성

1936년 삼천리사 주최로 열린 「여류 작가 좌담회」에서 사회자 김동환은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류문단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잡지사과 이전(梨專)문과와 남성사회에 보내고 싶은 말씀”을 각자 해보시라고.1) 박화성, 장덕조, 모운숙, 최정희, 노천명, 백신애, 이선희가 참가했던 이 좌담회에서 ‘여류문단의 진흥’을 위해서 유독 이화여전 문과와 신문잡지사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元周) 등 근대문학 초창기의 여성작가가 개별적인 존재라 여겨지는, 극소수의 신여성이었다면, 이른바 제2세대 혹은 제2기 여성작가들의 경우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교육과 공적영역에 진입한 경험을 가진 집단적 존재로서 문단에 등장한다. 삼천리사의 좌담회에 참가한 여성작가들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이들이다.

여기에서 이화여전은 식민지에서는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언급되었고 실제로 모운숙, 노천명을 비롯한 많은 여성작가들이 수학한 곳이기도 하다.2) 이에 비해 신문잡지사가 여성작가와 관계 맺는 방식

1) 박화성 외, 「여류작가 좌담회」(『삼천리』, 1936.2), p.220. : 이외 다른 질문은 “최근 해내(海內)해외(海外) 제작가(諸作家)의 작품의 인상, 구상(構想), 집필할 때의 고심담, 여류작가가 본 남성작가의 인상, 어느 작가를 사숙(私淑)하는가, 독서는 어떤 경향의 것을 하는가, 여류작가로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고통이 아닌가, 한 달에 얼마나한 원고료를 받는가” 등이다.

2) 실제로 이화 여전 혹은 이화 여고보에 다녔던 여성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김원주(元周) - 이화학당(이화전문) 중학과 졸업(1918)

노천명 - 이화여전 문과(영문과) 졸업(1934)

모운숙 - 이화여전 문과(영문과) 졸업(1931)

이선희 - 이화여전 문과 수료(1928)

임순득 - 이화여고보에서 학생시위로 퇴학(1931), 동덕여고보로 편입

장덕조 - 이화여전 영문과 중퇴

장정심 - 이화유치사범학교 졸업(1921)

전숙희 - 이화여전 문과 졸업(1938)

은 좀더 복잡해 보인다. 근대 이후 저널리즘은 여성 계몽과 교육의 장(場), 여성의 글읽기 공간이자 한편으로는 여성의 글쓰기가 현실화되는 곳이었다. 『여자계』(1918)를 시작으로 1920~30년대의 많은 여성잡지, 신문(특히 가정란)을 중심으로 여성 담론이 비로소 공공영역에서 발화되었고, 그것은 신문잡지라는 근대적 매체를 통해 생산·유통·소비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등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작문 시간에 재능을 보인 여학생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글을 쓰며 문단에 나와 기자가 되고, 작가가 되었으며, 나머지 많은 여학생들은 '모던 걸'로서 '문화생활'을 꿈꾸며 '신가정'의 현모양처가 되어 그 잡지와 작품들을 읽었다.³⁾ 근대 이후 글을 쓰는 여성과 글을 읽는 여성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여성에게 글쓰기와 글읽기를 습득·훈련시키는 근대적 제도라면, 글쓰기와 글읽기가 근대적으로 유통되는 장이 저널리즘이다. 또 한편으로 저널리즘은 여성작가가 생성되는 존재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삼천리사의 좌담회에서도 박화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자 생활을 경험한 이들이다. 예외인 박화성도 교직에 있었던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 좌담회의 구성원들이야말로 학교와 저널리즘이라는 근대적 제도와 여성작가가 관계하는 친연성을 고스란히 실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보고에서는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는 남성 문인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문화예면 분석, 구인회, 염상섭·김기림 등의 작가론에 치중되어 있었고, 여성작가의 경우 개별 작가 논의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데 그쳐왔다. 이에 비해 심진경은⁴⁾ 여성작가의 생성기반이 기자출신이라는 것과 이화여전 문과출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3) 이상경, 「1930년대의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여성문학연구』 12(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p.252.

4)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소명출판, 2004), pp.299~336.

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연관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저널리즘 공간에서 어떻게 여성작가가 배태되는지, 특히 1920~30년대 여기자 집단이 작가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저널리즘의 당대적 성격(여성과 관련하여), 두 번째 신문잡지의 여성독자층, 세 번째 저널리즘에 관련한 여성작가층, 네 번째 여기자-작가들의 기사문과 작품의 성격 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1920~30년대 여기자-작가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라보는 남성작가들과 당대의 언설을 고려, 그들이 저널리즘 공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근대 여기자-작가 집단의 실태도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는 여기자-작가에 대한 기본 사실 확인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문제까지 아울러 논의하면서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상관성을 보다 상세하게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근대적 직업으로서의 여기자(女記者)

식민지근대 이후 등장한 신여성의 새로운 직업은 대체로 교사(유치원 보조, 중등교원), 여기자, 여점원(또는 백화점 슝 걸), 여의사, 산파, 간호부, 은행원, 전화 교환수, 타이피스트, 여직공, 여급(카페 걸), 엘리베이터 걸, 버스 걸, 기생 등이 있다. 이중 기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근대에 이르러 출현한 직업군에 속한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여성에게 '직업'이란 말을 거론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근대적인 변화이기도 하다. 직업이란 여성이 공적 영역과 관계 맺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니 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는 <매일신보>의 이각경이다. 그녀는 1920년 공

채로 매일신보에 입사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인사 인터뷰와 가정방문기 등 직접 취재한 기사를 작성했다.⁵⁾ 그러나 언제 퇴사했는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매일신보>가 총독부 기관지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최초의 여기자란 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듯하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각경이 기자로서 활동한 흔적은 분명하다. 그녀는 채용된 지 열흘 뒤인 9월 14일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부인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창덕궁 지밀여관을 방문한 기사에 이어서 9월 15일자부터는 고정제목으로 「부인기자의 가정방문기」를 게재한다. 그의 가정방문기는 9월 15일자부터 9월 21일자, 9월 29일자에 실렸다. 또 그 해 말인 12월 5일자에는 「이백작 저 방문기」를 썼고 이각경 여사라고 이름까지 밝혔다. 이각경은 이때 <매일신보>의 자매지였던 일어신문 <경성일보>의 여기자 가마다와 동행하여 일본어 통역도 해줬다는 것으로 보아 <경성일보>에도 이미 일본인 여기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이후 1922년 개벽사에서 부인잡지 기자로 김경숙을 채용하고, 1924년 민간지 최초로 조선일보사가 여기자 최은희를 채용하면서부터 각 신문잡지사

- 5) <매일신보> 1920년 9월 5일자에는 「금회에 본사 입사한 부인기자 이각경 여사, 오늘의 부인사회를 위하여 건전한 붓을 휘두를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각경의 입사를 알리는 기사가 실려 있다.
- 6) 이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최초의 여기자를 개벽사의 김경숙으로 손꼽고 있거나, 민간지의 경우를 따져야한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최초의 여기자였던 최은희를 거론하기도 한다.
- 7) 물론 신여성 중 나혜석이 1918년 『여자계』의 주간 겸 기자노릇을 했다거나 그 후 1919년에 김원주가 『신여자』의 주관, 주필, 기자를 겸했다는 기록도 있어 이들을 최초의 여기자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경희, 「여성언론인의 역사」, 『또하 나의문화』 제2호, 1986.) 그러나 나혜석이 『여자계』 발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나혜석은 1918년 총무를 했고 1918년 『여자계』 2월 호에 정월이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썼지만 여자계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덕성으로 되어 있고 나혜석이 주관을 맡았다는 기록은 없다. 또 김원주도 1920년 3월에 창간된 『신여자』의 주관을 맡았으나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맡았던 이 잡지는 3호 발행으로 그쳤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경우는 여기자로서의 활동 이라기보다는 문학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서 여기자 채용이 성행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여기자를 채용하게 된 것은 <매일신보>가 “시대에 요구에 응하여 시(是)에 부인기자를 채용”⁸⁾ 했다고 스스로 공표한 것처럼 달라진 시대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그도 지금 와서는 필연적으로 부인기자의 수원을 받게 된 것이 신문 잡지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략) 아즉도 녀학교가튼데서까지 산해기자의 면회를 싹 거절하는 희귀한 교육식이 있고 가명방문 개인교제에도 남자로서는 도저히 원만하게 하기가 어려운 즉 말하자면 소위 남녀유별의 무근 도덕이 아라도 고치지 안고 그대로 켜켜히 남아있는 요현상의 사회에서 아모려나 여자사회의 발면이나 진보를 도모하라면 적어도 녀기자 그분들의 분투와 노력을 기다려야만 할 것을 필자는 김히김히 깨다렸습니다.⁹⁾

위 인용문에 따르자면 시대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여학교나 가정방문, 개인교제에 대한 기사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이들의 사회진출 영역이 확대되면서 신여성이란 자체가 기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여성 독자를 형성, 집단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 인용문의 필자는 “여자사회의 발면이나 진보를 도모하”려는 “녀기자 그분들의 분투와 노력”이 스며드는, 말하자면 여기자들에 의한 여성해방 또는 여성 계몽적 언론활동도 전망해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기자들의 활동양상을 보자면 이런 적극적인 부분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 우선 여기자의 채용과정이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여성독자를 끌어들이려는 상업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근대에 그의 마튼 일은 지금의 다른 여기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정방문의 기사가 제일 만헛섯고 또 한가지는 그제만하야도 일반가정에서 잡지가 덧더한

8) 「시대의 요구에 응하여 부인기자 채용」, <매일신보> 1920.7.1.

9) 「우리직업부인계의 총평」, 『신여성』 3권 4호(1925.4), p.32.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기사보다도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그 잡지의 선전을 하는 것이 큰 임무였다. 해가 벌써 오랜 까닭으로 그의 기사쓴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안치만은 가정으로 다니며 선전하는데는 상당한 성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된다.¹⁰⁾ (강조 - 인용자)

이 인용문은 1920~30년대 대표적인 여성잡지 『신여성』에서 모회사(母會社)인 개벽사 최초의 여기자였던 김경숙의 채용경위나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에 따르면 김경숙은 개벽사가 부인잡지를 발행하게 되면서 채용되었는데, 사실상 기자라기보다는 가정방문 영업사원의 역할을 했다. 이 역할의 주된 내용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부인잡지를 선전하고 판매해야 하는 일이다. 이 선전과 판매가 가정부인이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자라는 존재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취운생이라는 필자는 김경숙의 “전(傳)”을 서술하면서도 “기사보다도” 가정 방문과 잡지 선전을 했던 활동에 중점을 두며, 그 일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김경숙이 어느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일반 외판원인 줄 알고 문전박대를 당하자, 신문사로 돌아와서 그 집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보모를 사칭, 가정방문을 한다는 구실로 다시 방문하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교제에 능하고 말씀씨가 대단”했다는 점이 기자로서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민간지(조선일보) 최초의 여기자였고, 본격적인 기자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종 최초의 여기자라고 평가되는 최은희의 경우도 채용된 경위를 살펴보자면 김경숙과 별반 다르지 않다.¹¹⁾ 허영숙이 그녀를 조선일보 부인기자로 추천하기도 했지만 정작 여기자로 채용된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수완과 영악함”을 인정받았던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 날 최은희가 허영숙의

10) 취운생, 「조선신문잡지의 부인기자열전」, 『신여성』 6권 3호(1932.3), p.50.

11) 이하 최은희의 이야기는 「최은희씨와의 회견기」(청오생, 『별건곤』 1927.8, pp.80~84)를 요약한 것임.

집에 갔을 때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민태원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허영숙이 자신이 의사로 있을 때 황금정의 부자(富者)가 치료를 받고도 치료비 80여 원을 계속 미루면서 깎아달라는 얽치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그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한 최은희는 자청해서 그 돈을 받으러 간다. “그 집에 가서 엇지나 조르고 다구어 댕든지 그 쇠귀신가튼 부호도 돈을 내고야” 말고 “그 소문이 엇지하야 조선일보 당국자의 귀에 드러갔든지 나를 여기자의 적임자로 생각하고 허씨의 천(薦)대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최은희는 1924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이래 가정란, 학예부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부까지 두루 거치며 방문기사, 사회문제 취재기사 등을 능숙하게 써내 부장까지도 역임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가 여기자가 된 것은 기자로서의 능력보다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는 끈질긴 수완이 있다는, 영업사원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당대의 여기자가 어떤 입지점에 서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¹²⁾ 그래서인지 각 신문잡지사가 내걸은 여기자 채용조건을 보면, 학력은 중등 이상 혹은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사람을 택하는 데 “무엇보다 회화에 서투르지 안코”¹³⁾라든가 “인내심과 활동력”¹⁴⁾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기자들은 사내(社內)에서는 화초(花草)·화형(花形)과 같은 존재였으며¹⁵⁾ 한편으로는 각종 여성인물 소식란이나 가십거리에 단골로

12) 영업사원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자가 채용된 경우 외에는 혈연·지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신문잡지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허현이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딸 허정숙이 여기자로 채용되었다든가, 이광수가 동아일보사에 있을 때 부인 허영숙이 동아일보에 입사한다든지, 차묘석, 황신덕, 이현경 등도 남편에 의해 여기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3) 물망초, 『문화전선의 기수-부인기자의 생활』, 『신여성』 7권 12호(1933.12).

14) 『흥미있는 부인기자』, 『별건곤』(1927.3), p.101.

15) 1929년 『별건곤』에서 마련한 『동아 조선 중외 삼신문사 여기자 평판』에서는 “세 신문사 부인기자에게는 대개 남자기자가 한 분씩 딸아있다. 남기자에게 녀기자가 딸녀잇는지 녀기자가 남기자에게 딸려잇는지 여기서 그것을 명언하고는 십지안으

등장, 사생활이나 용모, 성격 등이 시시콜콜 거론되기도 했다. 이처럼 초창기 여기자들이 기자라기보다는 방문직 영업사원의 역할을 했고 이후 실질적인 기자활동을 했던 여기자들도 가정란이나 학예면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자가 등장함으로써 저널리즘에서 여성적 공간이 넓어진 측면도 있지만 결국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공간만이 허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자의 등장은 여성독자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고, 이들 여기자·여성독자의 공간은 가정란이나 학예란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최초의 여기자를 채용한 〈매일신보〉나 대부분의 근대 신문잡지계가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 최초의 여기자는 〈東京朝日〉의 사회부 竹中繁(당시 26세)로 알려져 있다(1911년).¹⁶⁾ 1900년 전후 여성독자의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신문에서는 요리, 재봉 등 실용기사를 중심으로 한 가정란이 설치된다. 이를 담당할 여성기자가 필요해졌고, 이로 인해 최초의 여기자 竹中繁가 채용되었다. 기자로

나 그러나 옛젯든지 만세이전에 헌병에게 보조원이 따르듯이 학예부주무자인 남귀자에게 한분식의 부인기자가 딸녀있는 것은 보와서 아는 바이다.”(외도生, 『별건곤』 1929.12, p.20.)라 하고, 1935년 『개벽』의 〈신문특집호〉에서는 “넋날 신문은 그만두고 기미 이후 새로 생긴 민간 3신문만 하야도 연령이 벌써 14.5세가 되었으니 그 안에 들락날락한 기자 수도 무려 수 백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 본위로 조직된 이 사회는 신문사도 역시 남성 본위로 되었기 때문에 기자도 태(殆)히 전부가 남자요 혹 여기자가 있다고 해도 그야말로 만록총중일점홍(萬綠叢中一點紅) 격으로 한 사(社)에서 화초기자(花草記者)로 한 사람 박게 더 두지 안코 또 여기자 자신도 환경관계로 1년 이상을 속근(續勤)한 사람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그 활동 성적도 이렇다할 사람이 또한 별로 없다.”(『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4호, 1935.3.1, p.70.)라면서 여기자의 희소성과 여성이 배제된 신문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화형기자(花形記者)라는 말은 여기자를 여배우처럼 취급, “조선일보사의 화형여자 최은희”(삼산인, 「취직성공·실패담」, 『신여성』 7권 4호, 1933.4, p.55.)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16) 이하 일본 여기자에 관한 내용은, 『젠더로 본 신문의 앞면과 뒷면』(田中和子 外, 『ジェンターからみた新聞のうら・おもて』, 現代書館, 1996.)의 「가정면의 역사와 여성기자」(pp.245~263)를 참조.

서 여성의 역사는 가정란이 여성기자를 필요로 한다는 도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유효한 것이다.¹⁷⁾

3. 여기자(女記者)-작가 집단의 출현

실제 현실에서 여성들은 기자생활을 하다가 작가로 등단하기도 했고, 작가가 되기 위해 기자를 선택하기도 했고, 별다른 문학작품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여류작가’라고 지칭되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1920~30년대에 여기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20~30년대 여기자 현황¹⁸⁾

이름	학력	기자활동	비고
강향란	동경·상해 유학	모신문사 부산지국	기생 출신
권○순		부인공론기자 (1932)	〈신동아〉 1932년 5월호 좌담 회에서

17) 1994년 한국언론연구원의 조사에서 전체 기자 가운데 여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14%에 불과했고, 2003년 여기자 클럽(현 한국여기자협회)이 여기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자 4990명 가운데 여기자는 625명으로 12.5%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또 90년대 후반부터 기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절반에 달하면서 양적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간부급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 여기자에 대한 부서배치, 업무분담 등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박금옥, 『일간신문 여성가정난과 게이 트키퍼 연구』(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7), pp.6~62. 참조)

18) 위 표는 『개벽』, 『신여성』, 『별건곤』, 『여성』, 『신가정』, 『신동아』, 『삼천리』,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당대의 신문 잡지와 『한국여성사정립을 위한 여성인물유형연구 III』(최숙경·이배용·신명숙·안연선, 『여성학논집』 vol 10,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 1993, pp.11~139.) 등을 참고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이때 『여자계』를 창간했던 나혜석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인활동의 성격이라고 판단, 제외했으나 김원주(元周)의 경우는 『신여자』 때문이 아니라 〈불교잡지사〉에서 기자생활을 했다는 언급(『신동아』 1932.5) 때문에 여기자 명단에 포함했다.

김경숙	춘천공립보통학교	개벽사	교사로도 활동
김말봉	정신여고	중의일보(1929)	소설가
김명순	진명여학교, 일본 시부야국정여학교	매일신보(1925)	소설가, 시인
김오남	일본 니혼대학 영문과	조선일보	시조시인
김원주 (元周)	이화학당(이화전문) 중학과 졸업, 동경영화학교 중퇴	『불교』지 기자 (1927~1932까지 지 문예판담당)	일엽, 소설가 / 〈신여자〉 창간
김원주 (源珠)	동경고등 잠사학교	개벽, 매일신보	성혜림(김정일(北)의 아들 김정남의 생모)의 어머니
김자혜		신동아기자	소설가, 남편 주요섭
노천명	이화여전 영문과	조선중앙일보 (1934)	시인
모운숙	이화여전 영문과	삼천리(1931)	시인
박경식	경성여고보, 동경·상해 유학	개벽사	
박은혜		아이생활사	〈신동아〉 1932년 5월호 좌담 회에서
백시라		별건곤	
백신애	대구 도립 사범학교, 일본유학	기자 활동	소설가, 교사로도 활동
성선희		별건곤	
송계월	경성여상	개벽사(1931)	소설가
윤성상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각경	한성고등여학교	매일신보	최초의 여기자
이선희	이화여전 문과 수료	개벽(1934)	소설가
이옥경	한성고등녀학교	매일신보	
이현경	경성여고보, 동경 木白여대	동아일보	남편 안광천
장덕조	이화여전 영문과 중퇴	개벽(1932)	소설가
조현경		여론사(女論社)	〈신동아〉 1932년 5월호 좌담 회에서
차묘석	숙명여고보	조선주보사	시인, 남편 김경재
최은희	경성여고보, 동경 일본 여대	조선일보	교사로도 활동
최익순	동경여자 고등사범	동아일보, 개벽사	남편 진장섭
최정희	중앙보육학교, 숙명여고보	삼천리사(1931)	소설가, 남편 김유영, 김동환
허영숙	진명여학교, 경성여고보, 동경여의전	동아일보	의사, 남편 이광수

허영숙	배화, 고베신학교, 미국 유학	동아일보, 개벽사	남편 임원근·송봉우(애인관계로 소문) 신일룡·최창익
황신덕	승의여학교, 津田英學塾	신가정, 중앙일보사	남편 임봉순

이들 중 작가로 분류되는 사람은 김말봉, 김명순, 김오남, 김원주(元周), 김자혜, 노천명, 모운숙, 백신애, 송계월, 이선희, 장덕조, 차묘석¹⁹⁾, 최정희 정도이다. 여기자 31명 중 13명이 작가였던 셈이다. 그 외 최의순, 김원주(源珠), 허영숙도 당대에 '여류문사' 혹은 '여류평론가'라고 불렸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작가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 당시에는 여기자의 역할에 따라 방문기자, 다리기자, 번역기자, 창작기자, 탁상기자라는 별칭이 있었고²⁰⁾ 사무실 근무를 주로 하던 탁상기자 중에 창작기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 종종 수필도 썼다. 동아일보의 최의순이나 허영숙, 매일신보의 김원주(源珠)는 이러한 이유에서 '여류문사'라 불렸다. 그렇다면 여기자-작가였던 이들은 당대의 저널리즘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을까. 이들 중 우선 최정희·송계월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최정희·송계월은 둘 다 기자활동을 하다가 작가로 등단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최정희는 저널리즘의 권력과 결합, 여성문학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며 해방이후까지 여성문단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송계월은 기자였으면서도 그자신이 온갖 소문이 난무하는 기사거리가 된 즉 황색저널리즘의 대상이 된 경우이다. 권력의 중심이 된 여성과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여성.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두 작가를 통해 저널리즘 공간에서 당대의 '여기자-작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 1932년 『신여성』에서는 차묘석을 숙명여자고보를 졸업한 “반도 규수 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각 여학교 졸업생 연파레-드』, 『신여성』 6권 3호, 1932.3), p.46.)

20) 『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4호(1935.3.1), pp.70~75 참조.

1932년 『신동아』에서 열린 “여기자 좌담회”에는 9명의 여기자가 참가한다. 기지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묻는 설의식의 질문에 “그저 기자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선택했다는 윤성상같은 이도 있었지만, 최정희와 허영숙은 문학을 그 이유로 든다.

허영숙 : 나는 공부는 의학공부를 했으나 처음부터 의학은 실혔고 문학에 취미가 만혔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면 문학공부에 도움이 될까하고 생각해서 기자가 되었었습니다.

최정희 : 저는 중앙보육학교를 마친 후 기자가 되었는데 사실인즉 나도 어렸을때부터 문학에 취미가 만해서 창작장난도 만히 해보았지요. 그러나 집안 형편이 허락지 안아서 문학을 전공 못하고 잊었습니다. (중략)

허영숙 : 내가 쓴 글을 수많은 사람이 읽는다는 자부심과 호기심이 나서 기자가 되고 싶었지요. (중략)

최정희 : 내가 글을 써서 남에게 읽히겠다는 생각보다도 문인을 만히 사귀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전부터 신문잡지에 투고를 만히 했는데 도모지 내주지를 아녀요(笑聲) 그래서 그 분पुर리로 잡지 기자가 되었서요.²¹⁾ (강조 -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기자가 된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내가 쓴 글을 수많은 사람이 읽는다는 자부심”이다. 이는 매체에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며,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의 글쓰기 즉 신문잡지기사나 문학작품을 비롯한 모든 글쓰기행위가 갖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자활동이 작가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이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등의 일이 문학작품에 훌륭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인을 만히 사귀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최정희의 말은 다소 의미심장하다. 이는 직접적으로 문학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도

21) 「여기자좌담회」, 『신동아』(1932.5), p.88.

하지만, 그녀가 신문잡지사를 중심으로 문인들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작가와 기자·편집 기획자·출판자의 관계 속에서 이른바 문단이라는 집단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았다는 것이다. 최정희는 그래서 신문잡지에 투고한 작품이 계속 거부되자, 차라리 투고작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 즉 근대적 매체와 문단의 권력 속에 편입되고자 한다.²²⁾ 근대적 매체와 문단의 권력구도를 명민하게 알아챈 최정희는 이 때문에, 익히 알려져 있는 바대로 『삼천리』지의 기자로서 1930년대 이후 여성 문단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성적’인 작가의 등장을 기대하는 당대의 문단 분위기에 부응하여 그러한 소재들을 최정희 스스로 발굴해나가고, 기자로서 여성 문인들을 계속 지면에 등장시키면서 최정희 스스로 일종의 여성문단의 권력이 되었던 것이다.²³⁾ 실례로 1930년대에는 유독 삼천리사가 주최한 문인 좌담회 특히 여류좌담회가 자주 열렸는데, 이때 최정희는 좌담회를 주도하면서 친분관계에 따라 여성작가들을 좌담회에 참석시키고 그들과 함께 꾸준히 문학적 발언을 공론화하면서 주도권을 획득해나간다.²⁴⁾

이에 비해 송계월은 여학생 시절, 사회주의여성운동단체였던 <근우회>의 조직적인 여학생 운동에 깊이 관여한 이력이 있으며 1931년 개벽사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작가로도 등단한 경우이다.²⁵⁾ 그러나 당대 커다란 화

22) 최정희가 기자가 된 직접적인 동기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유영과의 가난한 결혼 생활을 견디다 못해 스승인 박희도를 찾아가자 그가 삼천리사 주간인 김동환을 소개시켜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최정희가 여기자를 통해 의도한 바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최정희가 삼천리사의 기자가 된 이후 스스로는 습작이라고밖에 여기지 않지만 하여튼 첫 작품인 「정당한 스파이」를 『삼천리』(1931.10)를 통해 발표했다는 사실도 그녀가 ‘여기자’에 대해 기대했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23)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실천문학』(2003.봄), pp.60~61. ; 또한 이 글은 어떻게 최정희가 1930년대 후반부터 여성문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 친일로 변모하는 경로를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24) 심진경, 앞의 글, pp.329~330. 참조.

제였던 ‘처녀 출산’ 소문이라든가, <맘스 걸 - 미모의 여기자 - 결핵 - 요절(23세)>로 이어지는 전기적 사실 때문에 그녀는 드라마틱한 이야깃거리로서만 다루어졌다.²⁶⁾ 또 2년 남짓한 짧은 작가생활과 몇 편 안되는 작품 양 때문에 1930년대 문단에서 송계월은 “문사자격”이 없다는 시비, 더 나아가 여성작가의 자질론을 문제 삼는 데에 대표적인 경우로 거론되기도 한다. 송계월이 개벽사 기자였기 때문에 ‘여류문사’ 대접을 받았으며, 미모의 신여성인 그녀가 ‘처녀출산’의 소문으로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주 거론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된 요지이다. 그러나 이 비판에는 왜 작가로서 함량미달인지에 대해서 작품의 양과 질을 따지기보다 소문에 편승해서 인신공격하는 면모까지 드러내고 있다.

송계월씨는 아직 작가라 불우기가 앓갑다. 그리고 너무나 귀여웁다. 그러나 작가이다. 씨의 작 「가두연락에 첫날」이 취재에 잇서 띄어나 새로운 맛을 주었스며 열분 충동까지 주었스나 아무리 그 취재가 좃코 새롭다 하더라도 그 테마를 충분히 충실히 구상화식하며 표현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대로 구수한 평범한 취재만도 못할 것이다. 이 작품은 xx적이면서도 아필(어필-인용자)할 가능성이 잇섯스나 씨의 수완으로 도저히 었지도 못할 것 당연이상의 당연일 것이다.(중략) 요컨대 씨는 예술에 잇서서 기술적으로 보잘 것이 업는 것이다. 여기에 씨는 적지 안은 자기자신에 대한 환멸을 가졌을 것이다. 만약에 이 작

25) 송계월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 그를 둘러싼 소문과의 쟁투」(줄고, 도정일 외 편, 『여성문학의 새로운 시각』 3, 월인, 2004, pp.305~322.)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6) 한편 흥미로운 점은 송계월이 ‘처녀출산’을 했다는 소문의 진원지가 최xx여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최xx여사는 최정희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처녀출산이라는 헛소문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송계월의 친한 친구이자 같은 함남출신이라고 지적하는 글이 있고(최정희는 함북 성진에서 태어났을 뿐 함남 단천에서 자라났다.), 또 송계월의 사후(死後) 최정희는 자신과 송계월 사이에 오해가 있어 사이가 멀어졌는데, 오해를 풀 길도 없이 그녀가 죽어버렸다고 애도하는 글을 쓰기도 한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보아 최정희가 소문의 최초 발설자라 여겨지지만,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

품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잘된 한 예술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갑기씨가 누구에게 말하드시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한 걸 읽을 필요가 있다.²⁷⁾ (강조 - 인용자)

위 인용문에 따르면 송계월은 작가라 부르기에는 지극히 미숙한 문학소녀일 뿐이지만 「가두연락의 첫날」은 참신한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목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녀의 능력이 부족하여 좋은 소재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으니, “이 작품은 하나도 된 대는 업다”고 평가한다. 당대에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가두연락의 첫날」에 대해 신랄한 평가를 하고 있는 필자는 이것이 송계월의 “수완” 즉 능력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더구나 이갑기의 말을 인용하는 데에 이르면 이 글이 과연 평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필자의 주장은 송계월의 작품을 칭찬하는 사람은 이갑기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갑기의 글은 바로 송계월의 ‘처녀출산’ 소문에 관한 것이다. 작품의 평가와 소문을 직결시키는 비논리성은 차치하고, 이 글은 결국 송계월의 인간됨됨이가 수준미달이므로 작품은 읽을 가치조차 없다는 저열한 공격까지 은근슬쩍 가하고 있는 셈이다.

처녀출산을 했다는 소문과 그 소문이 화제만발이라는 기사가 당대의 거의 모든 신문잡지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문학작품까지도 소문과 연결되는 지점에 이르면, 그야말로 송계월의 삶 자체가 가십거리였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를 예감한 것인지,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불과 몇 달 전²⁸⁾ 송계월은 “남성들이 조직해놓은 사업단체에 소수의 여성이 석기어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상에서는 곤란한 점이 만합니다”²⁹⁾라고 지적하기도 한

27) 홍구, 「여류작가 군상」, 『삼천리』(1933.3), p.73.

28) 송계월이 결핵 요양차 고향으로 내려간 시기가 1932년 2월이고, 그해 가을 서울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처녀출산 소문-요양을 위해 귀향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다는-이 퍼졌음을 알게 된다.

다. 그 '곤란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문으로 인한 엄청난 논란 속으로 자신이 말려들어감으로써 그 자신이 온몸으로 '곤란한 점'을 증명해보인 셈이 되고 말았다. 여성성을 부각시키면서 스스로 중심이 되어가는 여성과 대상화되고 배제되어가는 여성. 다소 거칠게 대별하기는 했지만 최정희와 송계월을 통해 이 두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저널리즘과 문학이라는 공간이 여전히 성차가 분명한 곳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단과 여성 작가의 관계

한편 1920~30년대에 여기자라는 사실은 남성문사(작가)들에 의해 '여류문사자질론', '여류문사 시비론'을 제공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여류문사'에 대한 논쟁은 대체로 여성작가들이 남성작가에 비해 작품 수준이 뒤떨어지니까 작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촉발된 것이다.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관련성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안함광의 경우³⁰⁾, 그는 원래 저널리즘과 문사는 거의 사촌관계이고, 이미 그녀들이 문사 호칭도 받아왔으며, 문사 자격 운운하는데 남성도 반성할 점이 있고, 지나치게 엄격·귀족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등등의 이유로 그녀들의 문사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반면 당시 주목받는 '여류문사'인 김원주(元周), 최정희, 송계월, 김원주(源珠) 등이 “대부분은 저널리즘과 유기적 관계를 매끈 자들이며 그들의 작품이란 아직 문사적 레벨에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하다”³¹⁾고 비판한다. 오히려 저널리즘과 관계없는 강

29) 송계월, 『매일신보』, 1931.11.8.

30) 안함광, 『문예시평 -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판』(1932.12), pp.122~127.

31) 안함광, 위의 글, p.123.

경애나 모운숙이 훨씬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데도 그들은 좌담회나 비평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여성작가의 경우에 마치 저널리즘에서의 평가와 문학적인 평가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모운숙의 경우 사실상 1930년대 각종 문학좌담회에 고정으로 참석하다시피한 여성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³²⁾ 비록 안함광의 글이 발표된 1년 뒤부터이기는 하지만, 모운숙은 1930년대에 열린 총 22개의 여성작가 관련 좌담회 중 12개에 참가하고 있다. 더구나 삼천리사 기자로 활동한 경력(1931), 해방이후 월간 문예지 『문예』(1948) 발간, 대한여자청년단, 펜클럽, 유네스코, 시인협회, 여류문인협회 등 각종 단체의 회장을 지낸 그녀의 경력을 감안한다면 저널리즘과 문학적인 평가의 관계를 딱히 규정짓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을 안함광이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한편 이무영, 이석훈, 홍구 등은 각각 개별 작가를 평하는 데 있어서 작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자란 이유 때문에 작가로 취급받거나 그 때문에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를 지적, 이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다.³³⁾

씨가 어느새 오늘과 같은 지위를 문단에 차지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씨의 문단출세의 빠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전혀 씨의 재질의 당연한 결과임에 틀림없겠지만 남달리 유리한 첩경을 밟았다는 사실도 빗볼 수 없는 것

32) 박화성과 백신애는 1936년 <여류작가좌담회>(『삼천리』, 1936.2)에만 참석한 반면, 최정희, 이선희, 모운숙, 노천명, 장덕조는 여성작가 좌담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여류문단을 형성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활약한다.(심진경, 앞의 글, p.330)

33) 이무영, 홍구는 앞장에서 거론한 송계월에 대해 '문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훈은 노천명이 저널리즘을 이용해 문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무영, 「여류작가개평(概評)」, 『신가정』(1934.2). ; 홍구, 「여류작가 군상(속)」, 『삼천리』(1933.3), pp.73~75. ; 이석훈, 「노천명의 재기」, 『조광』(1939.3), pp.146~147.

이다. 씨는 교문을 나서자마자 사회입문 겸 문단입문으로 「중앙일보」의 여기자가 되었다. 여기자가 되는 것은 이미 문단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함은 조선문단의 통례요 동시에 상식이다. 남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누구나 문단에 출세하려면 학예부 기자가 될 지어다. 기차를 타거나 그리찮으면 도보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대신 비행기로 훌 날아가는 거와 마치 일반이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터벅터벅 걸어가기도 수월한 노릇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모두 비행기를 탈 팔자를 가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 도보자의 비애가 있다. 34)

학예부 기자가 된다는 것을 비행기를 타는 것에 비유한 이석훈의 글은 저널리즘과 문단이라는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남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남성작가가 저널리즘과 관계를 맺은 경우를 문제 삼지는 않는 듯하다. 오히려 “느끼는 대로 읊는” “첫째 과정” 즉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노천명이란 여성이 요행히 저널리즘이라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부각이 된 경우임을 주로 논하고 있다. 35) 이석훈에 따르자면 그녀는 여전히 “시인이기 전에 너무나 압전하신 한 여성”일 뿐이다. 36)

한편 안함광의 논의에 대해 민병철은 적극 비판하고 나선다. 37) 그는 문사와 저널리즘의 유착관계에 대한 안함광의 비판은 정당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사, 문단이란 정의와 구별은 부르주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성별(性別) 구분으로 여류문사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남성작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해외문화과의 기관지 『월간문예』의 명록(名錄)을 보거나, 자신들이 발행하는 『시문학』에 시 한 편만 실으면 ‘문

34) 이석훈, 위의 글, p.146.

35) 이석훈, 위의 글, p.146.

36) 이석훈, 위의 글, p.147.

37) 민병철, 「여류문사에 대하여 - 동지 안함광군에게 보내는 일편서신」, 『비판』(1933. 03).

사'라고 칭한 예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사'란 "기성문단이란 썰오조아 내음새나는 기분을 주는 그들의 크룹에서 하는 말"일 뿐인데 "성적 차별 까지 하여가지고 「문사」란 내음새나는 명사를 논하"38)는 안희광의 논의는 계급적 입장을 몰각한 것이고 "「맑키스트」(맑시스트의 오식으로 보임-인용자)의 비평적 태도가 전혀 아니"39)라는 것이다. 민병철의 비판이 계급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안희남의 글은 조선 문단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여류작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좀더 주목을 요한다.

안희남은40) 1932년 당시의 문단 침체와 부진의 원인을 나름대로 진단, 저널리즘의 횡포로 인해 발표기관이 독점 '길드'화되어 있어서 편집자와 관계있는 소수가 전 영역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단에서 소위 여류문사로 지칭되는" "김원주(元周) 김원주(源珠) 최정희 송계월 허영숙 제씨"를 두고 작품의 유무, 문사 호칭의 정당성 등을 따지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류문단을 제쳐 노코 조선문단 전체를 노코 본대도 사이비 문사가 새고 셋스며 시 한 편을 써서도 시인인 척 되다 써부러진 소설을 한 개 내 노앗서도 대중잡지편집자와의 정의(情誼)관계로 인신공격을 일삼어 욕설만 퍼붓고도 일비평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외국 작가가 어찌니 최근 파란과 서반아문학이 어찌니하고 함부로 써부령거리고 자칭 해외문학소개가! 이러한 현상이어늘 가필코 여류문단에서만 이러한 것을 가질 권리가 업느냐? 만일 이것을 시비하고 상기한 바와 가튼 우론(愚論)을 토한다면 그것은 편견이다.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상을 악직도 써서버리지 못한 썩어진 인물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터문이 업는 여류평론가와 여류문사를 되는데로 내놓는 잡지 『삼천

38) 민병철, 위의 글, p.59.

39) 민병철, 위의 글, p.60.

40) 안희남, 「문단시아비아론-신인이 본 기성문단」, 『제1선』(1932.10).

리』는 남녀평등을 주창하는 훌륭한 짓이라고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표면적으로는 “편견”,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상”을 비판하고 있어 마치 여성작가나 ‘여류문단’을 긍정하는 듯하지만 이 글의 반어적인 어조를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입장이라 하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안희남에게 몇몇 여성작가보다 더 많은 더 심각한 남성 “사이비 문사가 새고 셋스며” “시인 인 척”하는 남성작가, 작품도 읽어보지 않고 “육설만 퍼붓”는 남성비평가가 활개치는 현실에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여류문단’을 논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저널리즘과 몇몇 작가가 결탁해서 발표기관을 독점하고(특히 이광수, 김동인을 집중비판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평가받을 기회가 봉쇄당한 “유명무명의 문학가가 썰을 지어 신음하”⁴²⁾고 있는데 여성작가에게만 그 존재유무를 따지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희남은 오히려 “터문이 엮는 여류평론가와 여류문사를 되는데로 내놓는 잡지 『삼천리』는 남녀평등을 주창하는 훌륭한 짓”을 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결론을 도출해내 버린다.

그러나 저널리즘과 작가의 친연성이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40년대에 김남천은⁴³⁾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비교하면서 문학은 그 본질상 발표와 인정에 대한 욕망을 가진 것이어서 저널리즘적 속성을 띠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한다. 즉 표현 현상인 문학행위는 보도현상과 전달이라는 저널리즘의 속성을 거의 동시에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남천은 특히 새로운 문학의 형성이 저널리즘의 형성과 거의 동시기에 있었고 비교적 질서 있는 문단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민간 신문의 영향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근대 남성 작가의 경우 황성신

41) 안희남, 위의 글, p.98.

42) 안희남, 위의 글, p.97.

43) 이하 김남천의 논의는 「신문과 문단」, 『조광』(1940.9) 참조.

문이나 초기 매일신보에서부터 기자와 작가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았고 이후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문인기자라 칭할 만큼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⁴⁴⁾ '구인회' 동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신문사만 보아도 동아일보의 현진건, 이익상, 주요섭, 윤백남, 홍효민, 이은상, 변영로, 심훈이나 조선일보의 염상섭, 현진건, 김동인, 김기림, 채만식, 홍기문, 함대훈, 이원조, 출판부의 이은상, 윤석중, 노자영, 노천명, 김래성, 계용묵 등이 그러하다. 또 백철, 조몽만, 최학송, 정비석, 이봉구, 조풍연, 이서구, 김서운 등도 1930년대 학예부 기자였으며, 이태준은 1935년 무렵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까지 지냈다.⁴⁵⁾ 더욱이 신문과 잡지는 책광고를 통해 작가-출판업자-독자를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간소개'와 문학비평을 고정적으로 게재했고, 단편·장편을 막론하고 식민지 시대 대부분의 소설은 신문에 발표·연재되고 있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친연성이 유독 특별하게 부각되고, 더 나아가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작가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이른바 '여류문사 시비론'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 중요한 사실은 저널리즘과 문단(작가)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과 여성작가의 경우만을 부각하는 것에는 같은 범주의 문제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저널리즘과 문단의 유착, 권력의 횡포 등등은 문제 제기되고 비판되어야 마땅하다.⁴⁷⁾ 그러나 그것이 유독 여기

44) 박현호의 경우, 이와 같은 기자와 작가의 친연성을 둘 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점, 다양한 독서경험과 어학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연재소설의 정착과 대중문화의 본격화에 따라 작가 섭의를 위해서라도 신문사에서 작가출신의 기사를 원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식민지 치하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 『동아시아학술원 학술 발표회 자료집, 2004.10.16』, pp.18~19 참조)

45)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화학회 편, 『한국문화와 풍속 1』(국학자료원, 2002), pp.167~168 참조.

4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푸른숲, 2003), pp.276~331 참조.

47) 예를 들어 임순득의 경우 문단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남성작가와 비평가들이 "금일의 '여류작가'를 제조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적절한 비판이라고 할

자=여성작가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면 이는 또 다른 권력의 작동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작가와 고급작가, 대중문학(통속문학)과 고급문학(순수문학) 등에 대한 논쟁이나 문학에서 정전을 가름하는 논쟁 등이 문학권력의 구도 내에서 이루어지듯이 여성작가 존재론에 대한 시비도 마찬가지이다. 작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개별 작품의 평가에서 작가론으로 수렴되는 것이고 그 당시 시대적 맥락 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다시 작품과 작가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문학사에서 작가나 작품의 좌표는 그 시대적 의미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변화 가능한 좌표적 위치를 인정하는 대신 타자(他者)와 구별·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순수성, 고급성, 우월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우리 문학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즉 끊임없이 경계 짓고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문학사적 위치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이른바 정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1930년대에 유독 저널리즘과 관련된 '여류문사시비론'이 성행했던 것은 권력(헤게모니)이 행사되는 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차이와 구별의 기준을 성별(性別)에 둬으로써 논쟁은 한결 돋보일 수 있었다. 소수자이면서 문단경험이 짧은, 문학 수련의 기회도 부족했던 여성작가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여류문사시비론'에서 헤게모니장악이라는 음험한 의도를 숨기고 객관적인 평가로 위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것이다.(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류작가론」(『여성』, 1940.9), p.52.) 임순득의 여성작가 비평에 대해서는 이상경의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을 참조.

5. 여기자(女記者)의 몰락과 여성작가의 출발

1933년 『별건곤』의 한 기사는 「여기자 몰락시기」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일보 윤성상 → 심훈, 매일신보 김원주(源珠) → 조용만, 동아일보 최의순 → 신남철로 바뀌었고 조선일보는 속간 초부터 정홍교(男)가 여기자 역할을 하더니 퇴사했고, 삼천리는 최정희의 일을 주간 김동환이 대신하고, 개벽사는 송계월의 사후(死後) 새로 들어온 윤봉태(女)가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⁸⁾ 다른 잡지나 당대 신문을 살펴봐도 1933년을 전후해서 여기자들이 일거에 사라졌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최의순은 병으로 사표를 냈고, 김원주(源珠)는 출산, 윤봉태는 결혼 등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몇몇 여기자의 사표 이후 다시 여기자가 충원되지 않고 그 자리를 남성이 채움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933년을 전후해 여기자들이 거의 모두 사퇴한 형국이 되어버렸다. 여기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던 초창기, 신문잡지사마다 경쟁적으로 한 명씩의 여기자를 두었던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 시기 여기자의 집단적인 몰락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석연치 않다. 더구나 전체적인 시대상황을 본다면 이는 외견상 모순적인 사실이기도 하다.

남성의 경우, 1920년대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었던 언론인들이 1925년 조선 공산당 사건과 1928년 신간회 결성의 여파로 대부분 망명길에 오르거나 퇴사하고, 1933년을 전후해 문인들이 저널리즘의 전면에 등장한다. 한편 이 시기에 상업자본주의의 성장, 카프 해소로 인한 문단 내적인 변화와 구인회의 결성(1933.8.16) 등으로 문단과 저널리즘의 성격은 크게 변화한다. 즉 1930년대 이후에는 부르주아 저널리즘이 심화되면서 '민족정론지'라는 계몽성 대신 상업적인 기사와 지면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1930년대 후

48) 「여기자 몰락시기」, 『별건곤』(1933.11), p.39.

반에 이르러서는 출신의 좌우를 막론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신문소설을 매개로 한 전반적인 '통속화' 또는 대중소설로의 수렴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된다. 결국 1933년을 전후한 시기에 저널리즘은 상업적이고 부르주아적인 면모로 귀결되고, 남성작가들은 이러한 저널리즘 공간에서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된 것이다.⁴⁹⁾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영업사원으로 출발해서 각 신문잡지사에 화초·화형의 의미로 존재했던 여기자가 오히려 상업적·대중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저널리즘 공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그동안 여기자라는 존재가 유발했던 상업적 효과를 신문잡지의 기사와 지면의 화려한 변모가 충분히 대신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신선함도 이미 상당부분 희석된 시대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자는 근대 인쇄 매체라는 사회적 영역으로 진입한 징표이지만 결국 그 영역에서 사실상 생산자라기보다는 상업적인 필요에 의해, 남성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였을 따름이라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하는 듯도 하다.

본고에서 여기자-작가에 대한 기본 사실부터 확인해나가며, 1920~30년대 여기자-작가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라보는 당대의 언설을 살펴본 결과, 당대의 저널리즘 공간은 성별이 분명히 구분된, 젠더화된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업적 의도에서 발탁되었던 여기자들 중 일부가 여기자-작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비록 그들이 자질론 시비에 시달려야 했고, 남성권력에 결탁하기

49) 조영복, 김민정 등은 모두 1933년을 전후한 문단과 저널리즘의 변모를 지적하고, 특히 조영복의 경우 이 시기부터 신문 화예면의 중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조영복, 「1930년대 신문 화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학회 편, 『한국문학과 풍속 1』(국학자료원, 2002), pp.155~179. ; 조영복, 「1930년대 신문화예면과 모국어 체험」, 『어문연구』 117권(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pp.173~197. ; 김민정, 「1930년대 문화적 장의 형성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Vol 26, No 4(일지사, 2000), pp.145~167.)

도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저널리즘이라는 근대적 메커니즘 속에서 자신을 기입하려 했던 여성의 고투라 할 수 있다. 남성 문인기자의 경우 이미 작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은 단계에서 기자로 발탁, 생계문제와 글쓰기의 양심 문제를 고민했고, 전통적인 문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작가로 분화되어 나갔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근대 공간에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기입하는 글쓰기를 통해 사회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작가라는 정체성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여기자-작가의 실제 활동, 독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좀더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자들이 대거 몰락한 1933년 이후에 오히려 여성작가의 본격적인 업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강경애, 박화성 등은 1933년 이후 대표작이라 할 만한 작품들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발표하기 시작했고, 백신애, 이선희, 최정희 등 여기자 출신의 작가들은 이때부터 실질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여기자라는 존재가 단순히 근대 여성의 새로운 직업이나, 작가로서 이용했던 영역이 아니라 여성의 글쓰기와 보다 깊이 관련된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여기자-작가의 실상을 밝히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를 토대로 밝혀야 할 앞으로의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개벽』, 『신여성』, 『별건곤』, 『여성』, 『신가정』, 『신동아』, 『삼천리』,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김동인, 「딸의 업(業)을 이으려-어떤 부인기자의 수기」, 『조선문단』(1927.3)

이태준, 「애육의 금렵구」(『중앙』 1935.3 ; 『이태준문학전집』 4, 서음출판사, 1988).

이태준, 「행복에의 흰 손들」(『조광』, 1942.1~1943.6 ; 『이태준문학전집』 11, 서음출판사, 1988).

2. 2차 자료

- 김민정, 「1930년대 문학적 장의 형성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Vol 26, No 4(일지사, 2000), pp.145~167.
- 김양선, 「여성 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pp.337~364.
- 김연숙,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 그를 둘러싼 소문과의 쟁투」(도정일 외 편,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3, 월인, 2004), pp.305~322.
- 김옥란, 「근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체험」(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pp.365~391.
- 물망초, 「문화전선의 기수-부인기자의 생활」, 『신여성』 7권 12호(1933.12), pp.58~60.
- 민병철, 「여류문사에 대하여 - 동지 안함광군에게 보내는 일편서신」, 『비판』(1933.3), pp.59~60.
- 박금옥, 「일간신문 여성가정난과 제이트키피어 연구」(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7), pp.6~62.
- 박헌호, 「식민지 치하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동아시아학술원 학술 발표회 자료집, 2004.10.16), pp.18~19.
- 박화성 외, 「여류작가 좌담회」, 『삼천리』(1936.2), p.220.
- 삼산인, 「취직성공·실패담」, 『신여성』 권4호(1933.4), p.55.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pp.299~336.
- 안함광, 「문예사평 -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판』(1932.12), pp.122~127.
- 외딿 생(生), 「동아 조선 중외 삼신문사 여기자 평판」, 『별건곤』(1929.12), p.20.
-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실천문학』(2003.봄), pp.60~61.
- _____,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 이석훈, 「노천명의 재기」, 『조광』(1939.3), pp.146~147.
- 이서구, 「영터리업시 만드러내는 신문기자의 미인제조 비술」, 『별건곤』(1928.8), p.152.

도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저널리즘이라는 근대적 메커니즘 속에서 자신을 기입하려 했던 여성의 고투라 할 수 있다. 남성 문인기자의 경우 이미 작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은 단계에서 기자로 발탁, 생계문제와 글쓰기의 양심 문제를 고민했고, 전통적인 문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작가로 분화되어 나갔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근대 공간에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기입하는 글쓰기를 통해 사회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작가라는 정체성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여기자-작가의 실제 활동, 독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좀더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자들이 대거 몰락한 1933년 이후에 오히려 여성작가의 본격적인 업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강경애, 박화성 등은 1933년 이후 대표작이라 할 만한 작품들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발표하기 시작했고, 백선애, 이선희, 최정희 등 여기자 출신의 작가들은 이때부터 실질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여기자라는 존재가 단순히 근대 여성의 새로운 직업이나, 작가로서 이용했던 영역이 아니라 여성의 글쓰기와 보다 깊이 관련된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여기자-작가의 실상을 밝히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를 토대로 밝혀야 할 앞으로의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개벽』, 『신여성』, 『별건곤』, 『여성』, 『신가정』, 『신동아』, 『삼천리』,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김동인, 「딸의 업(業)을 이루어-어떤 부인기자의 수기」, 『조선문단』(1927.3)

이태준, 「애육의 금렵구」(『중앙』 1935.3 ; 『이태준문학전집』 4, 서음출판사, 1988).

이태준, 「행복에의 흰 손들」(『조광』, 1942.1~1943.6 ; 『이태준문학전집』 11, 서음출판사, 1988).

2. 2차 자료

- 김민정, 「1930년대 문학적 장의 형성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Vol 26, No 4(일지사, 2000), pp.145~167.
- 김양선, 「여성 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pp.337~364.
- 김연숙,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 그를 둘러싼 소문과의 쟁투」(도정일 외 편, 『여성문학의 새로운 시각』 3, 월인, 2004), pp.305~322.
- 김옥란, 「근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체험」(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pp.365~391.
- 물망초, 「문화전선의 기수-부인괴자의 생활」, 『신여성』 7권 12호(1933.12), pp.58~60.
- 민병철, 「여류문사에 대하여 - 동지 안함광군에게 보내는 일편서신」, 『비판』(1933.3), pp.59~60.
- 박금옥, 「일간신문 여성가정난과 게이트키퍼 연구」(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7), pp.6~62.
- 박현호, 「식민지 치하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동아시아학술원 학술 발표회 자료집, 2004.10.16), pp.18~19.
- 박화성 외, 「여류작가 좌담회」, 『삼천리』(1936.2), p.220.
- 삼산인, 「취직성공·실패담」, 『신여성』 권4호(1933.4), p.55.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pp.299~336.
- 안함광, 「문예시평 -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판』(1932.12), pp.122~127.
- 외똥 생(生), 「동아 조선 중의 삼신문사 여기자 평판」, 『별건곤』(1929.12), p.20.
-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실천문학』(2003.봄), pp.60~61.
- _____,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 이석훈, 「노천명의 재기」, 『조광』(1939.3), pp.146~147.
- 이서구, 「영터리업시 만드려내는 신문기자의 미인제조 비술」, 『별건곤』(1928.8), p.152.

-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류작가론」, 『여성』(1940.9), p.52.
-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화회 편, 『한국문화
과 풍속 1』(국학자료원, 2002), pp.155~179.
- _____, 「1930년대 신문화예면과 모국어 체험」, 『어문연구』 117권(한국어문교육연
구회, 2003), pp.173~197.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푸른숲, 2003), pp.276~331
- 청오생, 「최은희씨와의 회견기」, 『별건곤』(1927.8), pp.80~84.
- 최숙경 · 이배용 · 신명숙 · 안연선, 「한국여성사정립을 위한 여성인물유형연구 III」,
『여성학논집』 vol 10(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소, 1993), pp.11~139.
- 취운생, 「조선신문잡지의 부인기자열전」, 『신여성』 6권 3호(1932.3), p.50.
- 편집부, 「각 여학교 졸업생 언파레-드」, 『신여성』 6권 3호(1932.3), p.46.
- 편집부, 「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4호(1935.3.1).
- 편집부, 「여기자좌담회」, 『신동아』(1932.5), p.88.
- 편집부, 「흥미있는 부인기자」, 『별건곤』(1927.3), p.101.
- 홍 구, 「여류작가 군상」, 『삼천리』(1933.3), pp.73~75.
- 竹島保良, 『婦人・家庭欄こと始め』(青蛙房, 1996), pp.56~59.
- 田中和子 外, 『ジェンターからみた新聞のうら・おもて』(現代書館, 1996), pp.245~
263.

Abstract

Journalism and Women writers' appearance

Kim, Yeon-Sook

This thesis features journalist-writers in 1920th and 1930th. It points out the real lives of women at that time; more and more women were getting the modern education. And newspapers dealt with the lives of those who were called 'New Women'. And also, there appeared a group of women readers. In concrete, women writers in the 20th and 30th made an appearance having more systematic base than before. Modern systems such as schools and journalism were their major channels to the public. Then, they learned writing and reading in schools and journals as social fields. In particular, journalism played a key role to spread learning. However, despite women's this changed status, most of women journalists were in sales and worked at the limited or gendered area.

Nevertheless, it is significant that some women journalists became writers. Jeonghee Choi and Gyewol Song were two models of those who struggled to survive their male-centered society and inscribe their name into it even if they suffered from being considered incompetent writers or cowards serving the male power. That is because while men's status as journalist-writers was rather stable, women's as journalist-writers was not. Of course, men writers have difficulty in making enough money to feed and clothe their family. They were even guilty of writers' immoral behavior under the colonization. Naturally, these men writers have been evolved and esteemed as modern authors in the

Korean literary history. In comparison, women writers made their every efforts so as to survive the male-centered society and identify themselves as writers in their own society.

key words : woman journalists, woman writers, journalism, feminine writing, gendered field, female identity.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